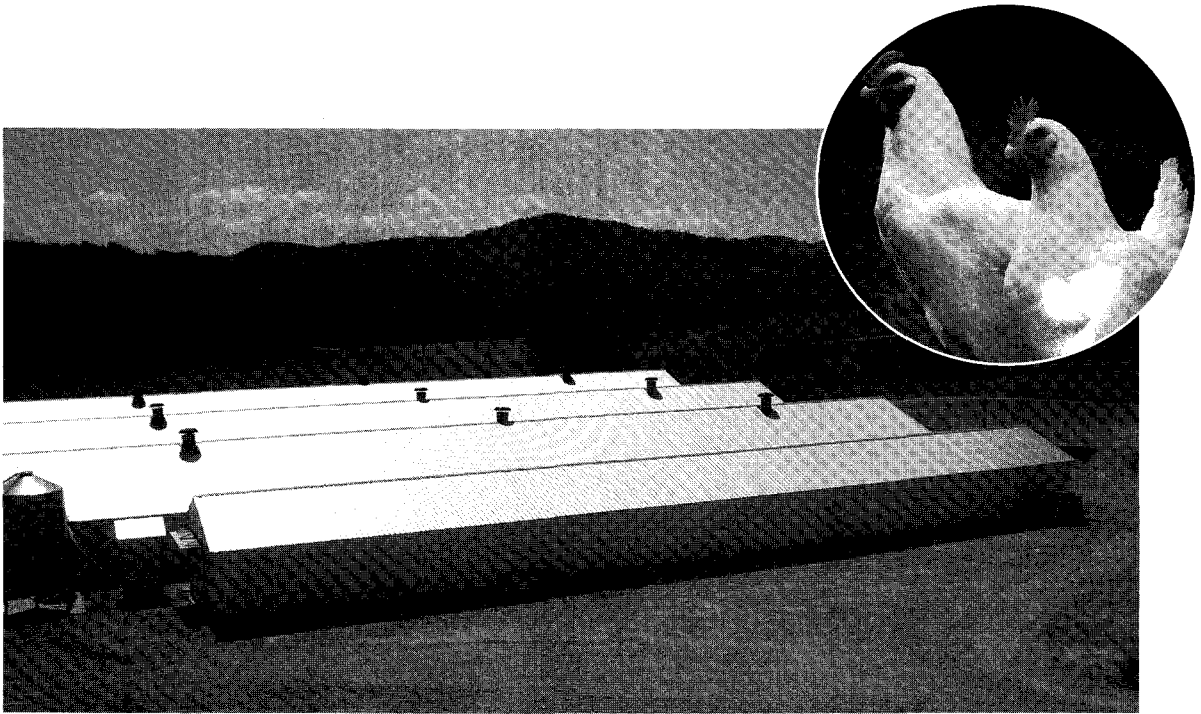




| 유한회사 한국원종 · 탐 방 |

2005년 아바에이커 종계분양 본격화 된다



최신식 시설을 자랑하는 보령시 천북면 장은리에 위치한 한국원종 원종계 농장 전경(원내는 아바에이커 원종계)

지난 2002년 10월 30일 유한회사 한국원종(하바드) 출범으로 국내 종계시장은 하림(코브)과 삼화육종(로스) 체제에서 3각 구도를 이루게 되었다. 특히 종계부화업계 19개 농장과 체리부로, 마니커, 동우 등 계열사가 참여하여 안정된 시장을 갖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었다.

초대 이승우 대표이사를 거쳐 2대 윤성희 대표이사에 이르러 종계업계 불황으로 원종계를 감축하고, 설상가상으로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경영이 힘든 상황에 처했음에도 꺾이지 견디어 내었다. 지난 5월 3대 김태환 대표이사가 취임 이후 국내 육계 산업에 많은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품종으로 아바에이커를 선택하여 또 다른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보령 천북에 최신식 성계사 신축

한국원종의 사육시설은 보령시 천북면 하만리 소재 육성농장 1개소(D라인 기준 16,000수 규모), 2003년도에 신축한 보령시 천북면 장은리 소재 성계 제1농장(D라인 기준 16,000수 규모)과 2004년도에 신축한 장은리 소재 성계 제2농장(D라인 기준 16,000수 규모)으로 이루어져 있다. 종란 부화는 최근 신축하여 피터자임 부화기를 설치한 흥익 부화장에서 전담하고 있다. 흥익부화장 여용현 사장은 전 천호부화장 시절부터 몇 십년간 부화 기술력을 인정받는 부화 전문가이다.

한국원종의 계사는 초아타임사와 록셀사로 부터 최신식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FANCOM사의 최첨단 환기시스템을 도입하여 원종계의 사양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사료급여량, 음수량, 체중, 온·습도는 물론 환기 및 점등프로그램 등은 최첨단 시스템에 의해 사무실에 있는 중앙 컴퓨터에 자동입력 분석되고 있으며, 사무실에 있는 중앙 컴퓨터에서 모든 통제 및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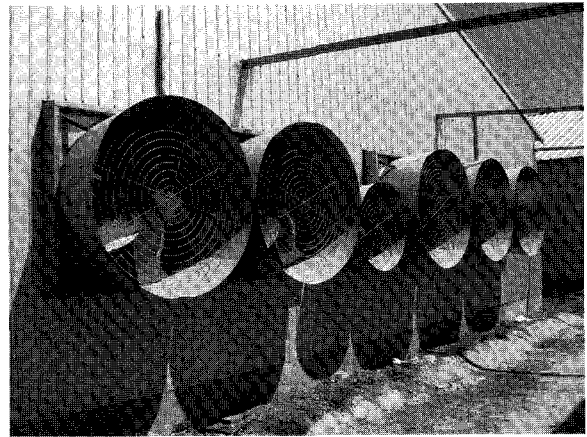
또한 2중 3중의 차단 방역 및 위생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좋은 종자를 생산해내기 위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새로운 도전 아바에이커 수입

한국원종 창업 후 사업이 본격화 된 2003년부터 하바드 종계 분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육종회사와 한국원종간 분쟁소지가 발생



원종계 성계사 내부는 최신식 초타임사와 록셀사의 사양시설을 도입하였다.



판콤사의 환기시스템을 도입한 계사

하는 등 문제가 발생되어 한국원종에서는 하바드 품종을 계속 도입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고심하게 되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등 국내외 여건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한국원종의 이사들은 계제(階梯)에 품종 교체에 대하여 신중하고 심각한 협의 과정을 거쳐 아비아젠 그룹의 “아바에이커 플러스” 품종을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고 한다.

2004년 7월 아바에이커 플러스(AA PLUS) 1만2천수(암탉기준)를 입식하였고, 9월 7일 현재

7주째 사육 중에 있다. 빠르면 2005년 2월말 종계분양이 가능하고, 9월말이면 첫 실용계가 분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원종 김태환 대표이사는 아바에이커 사양과 영업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아비아젠 그룹의 영업 담당자와 기술 담당자의 자문을 충분히 제공받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성공적인 분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경섭 영업부장도 아비아젠 그룹 아바에이커 아시아 지역 기술담당인 닐(Neal)로부터 각국의 종계 및 실용계 사양성적과 관련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만족할 만한 성적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원종은 아바에이커 관리에 필요한 질병·위생 관련 서비스는 아비아젠 수의사로부터 제공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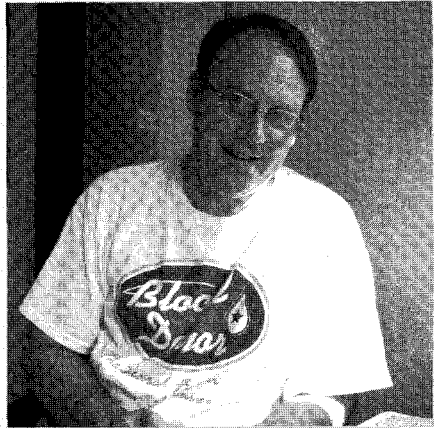
최적의 사양환경 및 사양관리

하만리 소재 육성농장에서 20주령까지 육성을 마치면 전용 수송 상자를 이용하여 성적농장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한다.

♥ 본기자는 지난 6일 내한한 아비아젠 그룹 사양기술사 닐과 인터뷰를 가졌다.

▲한국 방문 목적은?

한국원종과 아바에이커 공급 계약을 맺게 되었고, 이번 방문은 전반적인 육성 과정을 점검하고 이후 육성과정에 대한 토의를 위해서입니다. 원종계의 상태를 점검한 결과 대단히 만족스럽습니다. 급수기·급이라인, 환기상태 등 모두 훌륭한 시설이며 잘 운영하고 있어 아바에이커 플러스가 한국에서 성공할 것이라는 예감이 듭니다.



아바에이커 아시아 담당자 닐(Neal)

▲아시아 지역의 아바에이커 분포는?

아시아 지역에 아바에이커 원종계 공급은 약 40만수가 되고, 국가는 중국, 오스트리일리아, 태국, 대만,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등이고, 이 중 말레이시아는 방글라데시, 미얀마 등지에 종계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아바에이커 실용계 성적은?

아바에이커의 실용계 성적은 31일령 사육했을 때 1.55~1.6kg가 나오는 사양 결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한국 육계농가들이 기대할 만한 품종이 아닌가 싶습니다.

▲태국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후 종계공급에 변화가 예상되는데?

영업담당자가 아니라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태국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이후 1주일에 2천만수 이상씩 공급하던 실용계가 700만수로 줄었고, 로스 208은 없어지고, 로스 308, 코브, 아바에이커를 사육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일정은?

급년 중에는 10월과 12월에 방문할 예정에 있습니다. 12월에는 수의사도 동행하게 됩니다. 이 때에는 새로운 사양관리 기술을 전수할 계획으로 디비킹, 백신접종 기술 분야로 한국원종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육성농장 및 성계농장 모두 격리가 잘 되어 있는 지리적 위치가 최대의 장점이라고 하며, 농장간 거리가 이동차로 20분간 소요될 정도로 떨어져 있어 수송 스트레스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한다.

기자가 한국원종 육성농장을 방문한 당일 김태환 사장, 윤호식 원장, 김영국 부장은 아바에이커 아시아 담당자 닐(Neal)과 아바에이커에 맞는 사양기술을 교류하는 등 실 틈이 없었다.



아바에이커 사양관리 회의를 하고 있는 김태환 사장, 닐(Neal), 김영국 부장(좌부터)

미니인터뷰

한국원종은 오는 10월이면 창립 2주년을 맞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기자가 동사 3대 대표이사 김태환 사장을 만나 향후 진로를 들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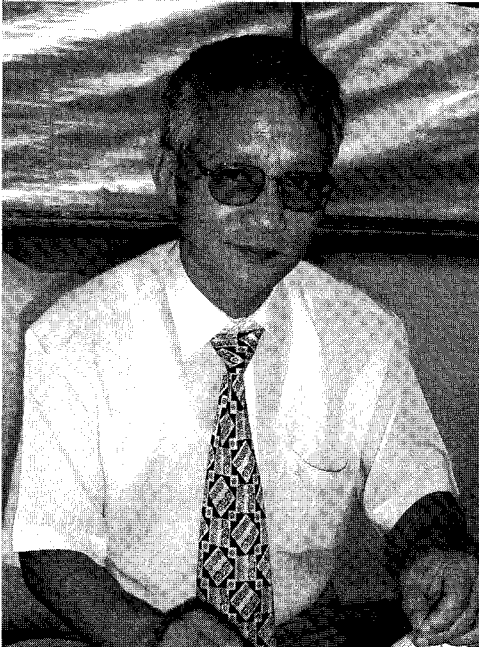
▲한국원종 대표 취임이후 경영 개선을 위해 중점적으로 하신 일은?

특별히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라기 보다는 굳이 말씀드리자면 안으로는 그 동안 전임 두 분의 대표이사 재임 기간 추진해 오던 원종농장 신축 업무와 관련하여 마무리 작업을 잘 마치고, 성계 편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일과 밖으로는 보다 나은 고객 만족을 위하여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원종의 현재 시장점유율은 어느 정도이고, 향후 2006년까지 시장 잠재력은?

한국원종의 시장 점유율은 금년 말을 기준으로 약 3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급자족 목적이 아닌 종계를 생산하여 판매를 하는 원종농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생산물량 대비 판매비율이 높다는 점과 금년에 거래 선이 다변화된 점이 성과라면 성과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2006년까지의 시장 잠재력은 육계 관련인 모두가 노력하여 파이를 얼마나 키울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문제이며 또한 현재로서는 농림부와 원종 3사간 협의해야 할 사안이므로 한국원종 입장에서 말씀드리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한국원종은 종계의 자급자족을 위하여 원종계를 확보하고 있는 입장이 아닐 뿐만 아니라 종계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는 원종 농장입장에서 국내 종계업계 현실 등을 감안해 볼 때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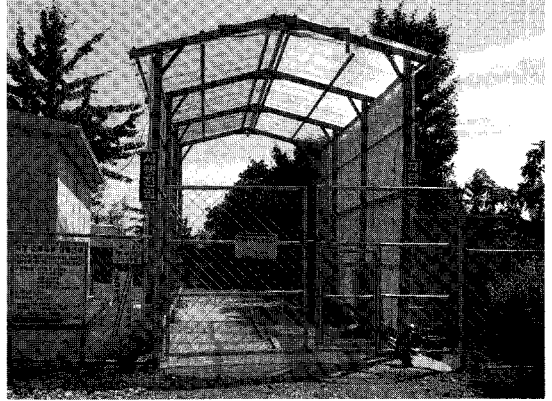
김태환 대표이사

질병관리 허점을 없애라

1) 계사 주변 및 내부 소독

원종계 농장의 기본 원칙은 철저한 차단방역이다. 그래서 모든 계사는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철조망을 설치하였다.

계사 외부는 오후에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계사내부는 매일 안개분무로 미세먼지 속에 있는 세균을 30초간 소독한다.



육성농장과 성계사에 설치한 차량소독장치

제의 GPS 도입단위로는 영업상 현실적인 애로 사항이 많고 또한 16,000수 사육규모의 농장에 12,000수만 사육하게 됨으로써 입계 되는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향후 한국원종 주주 및 업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지만 대표이사 입장에서 16,000수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최근 외국 육종 회사간 합병 내지 전략적 사업 제휴가 있는데 육종회사들의 변화를 말씀해 주시고 국내 원종회사들이 아비아젠 그룹에서 원종을 공급받고 있는데 수급 문제는 없는가?

원종계를 판매하는 외국의 우수한 육종회사들이 다국적 기업에 흡수 통합되는 등 큰 변화가 있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중에서도 아비아젠(AVIAGEN) 그룹이 선두 주자로서 국내에도 잘 알려져 있는 “R”, “L” 등의 품종을 전 세계에 판매해오고 있으며, “아바에이커” 품종도 아비아젠 그룹에서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한국원종에서도 아비아젠 그룹으로부터 “아바에이커” 품종을 도입한 것입니다. 아비아젠 그룹은 미국과 영국에 각각 거대한 유전자 풀(GENE POOL)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원종에서는 원종계 수급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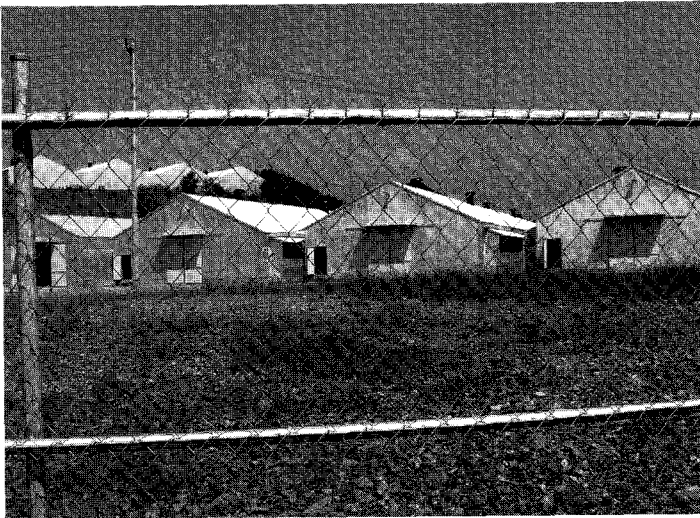
다만 국한된 특정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원종계를 공급 받아야 하는 원종계 농장에서는 만일 원종계 생산지역이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문제가 발생되면 수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와 같은 일은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지요.

▲마지막으로 종계능가와 육계능가에 하실 말씀은?

육계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육계능가, 종계능가, 도계장, 가공공장, 유통업자 등 누구 할 것 없이 모두가 최종 소비자를 생각하면서 생산 및 유통에 임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단기의 이익에만 급급한 나머지 이 평범하고도 냉엄한 사실을 외면하는 업체는 생존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육계업을 더욱 깊이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양계인들이 양계산물을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자세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저희 한국원종의 임직원들은 가장 위생적이고, 안전한 닭고기 생산을 위한 시발점이 가장 청정하고 위생적인 원종계 생산 및 보급이라는데 대하여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신축된 전천후 환경 제어 시스템을 갖춘 원종계 사육농장(위생·방역관리 우수원종계장)을 바탕으로 하여 결연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한 닭고기 소비홍보를 위하여서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단방역을 위해 농장 주변에 철조망 설치

2) 대인소독

바이러스를 옮기는 매개체 역할의 사람 소독은 1차로 발판소독, 2차 샤워, 멸균복으로 갈아입는다. 3차는 계사로 이동시 자체 장화로 갈아신는다. 4차로 에어 샤워기로 소독을 하고난 후 계사 앞 발판 소독기를 걸쳐 계사 문을 열고 들어간다. 사람들이 소지한 물품은 진출입시 자외선 소독기로 살균 처리하여 바이러스를 완전 차단하려 노력하고 있다

3) 차량소독

농장에 들어오는 모든 차량은 고압분무기로 소독한다. 그런 다음 차량소독기를 걸쳐 2차 소독한다.

부화장을 왕래하는 종란차량은 외부에서 대기하고 있고, 내부의 종란차량이 계사 철조망까지 이동하고 있다.

4) 방역·위생 컨설팅 강화

방역·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충북대학교 모인필 교수와 컨설팅 계약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는 장원동물약품 윤호식 원장이 컨설팅을 해주고 있다.

방역·위생관리는 장담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지만 현재 한국원종 원종계 관리 수준은 세균

성 질병 처리는 안전 수준에 도달하고 있고, 바이러스 질병 차단 방역에 역점을 두고 있다.

건실한 종계농가와 인재육성 주력

국내
종계농
가에서

품질 좋은 육용 실용계 분양 수수를 늘리기 위해선 위생 개념과 차단의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우선 종계농

가에서 농장의 문제점을 개방하기 꺼려하고 있어 어떤 부분을 개선할지 쉽지 않다는 것, 두 번째는 낮은 임금으로 직원이 자주 바뀌고 이로 인해 사양관리·백신접종·기계장치 관리 등을 손쉽게 다루는 인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인경섭 부장은 “한국원종에서 품질이 좋은 종계를 보급하더라도 종계농가에서 위생방역관리 및 사양관리가 제대로 안된다면 품질 좋은 실용계 분양에 차질이 발생하므로 한 단계, 한 단계 농가 지도를 통하여 개선하고, 종계업을 이끌 젊은 인재 발굴을 위해 육종회사 교육 프로그램을 최대한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국원종은 어느 분야에 편중되지 않고 원종 농장으로써 자리를 잡을 준비가 완료된 것으로 보였다. **양계**



종계장 인재육성을 강조하는 영업담당 인경섭부장